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개념의 타당화 연구

최 해 연* · 이 동 귀** · 민 경 환*
*:서울대 심리학과, ** 연세대 심리학과

'화병'은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1994년 미국 정신과협회에 등재된 문화결합증후군이다. 이는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참다가 신체화증상이나 우울감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를 다룬 중요한 시도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E)' 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 개념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King & Emmons, 1990) 최근 임상, 사회 및 성격 심리학에서 관심을 얻고 있다. King 과 Emmons는(1990) 정서를 표현하는데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다는 전제하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Questionnaire; AEQ)를 제작하였고 AE가 정서표현과 심리, 신체적 건강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제안하였다.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자신의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결혼만족도가 낮으며 우울증에 취약하다. 정서의 표현은 상황과 개인의 내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한다(Fridlund, 1997). 그런데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 욕구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동시에 가지는데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서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떨어지며 (Salovey, Mayer, Turvey, Goldman, & Palfai, 1995) 타인의 표현 역시 잘 믿지 못하거나 타인의 표현에서 너무 많은 단서를 읽어 단순한 정서적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King, 1998). 또한 이들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사이의 일치성이 떨어져 (Mongraine & Vettese, 2003) 정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Emmons &Colby, 1995). 즉,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적인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 및 표현과 같은 정서적 정보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서의 표현에 대해 양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정서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표현을 억압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Mongraine 와 그의 동료들은 (2003) 정서표현에 대해 양가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를 가져온다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우리가 어떤 정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정서가 인정되고 수용된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감각(validating)과 함께 안도를 경험한다(Linehan, 1993). 그러나 환경으로부터 지지나 수용을 기대하지 못할 때 개인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고 갈등과 긴장의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즉,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은 정서표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자신에게 중요한 사건들로 인해 유발된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려는 자연스러운 정서과정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부정적 정서를 장기화하거나 무력함을 야기함으로써 반추사고나 우울증과 관련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정서표현에 대해 양가적인 사람들이 정서사건에 보다 강렬하게 반응하고 정서적 사건에서 회복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리며 증가된 반추사고와 우울을 보인다(Katz & Campbell, 1994; King & Emmons, 1990; Mongrain & Zuroff, 1994). 요컨대, 정서의 경험과 표현 등의 정서과정의 차단, 정서표현 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과 관련되어 정서표현상에서 갈등을 겪는 것은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체면과 공손함을 중시하고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Kim, Deci & Zuckerman, 2002) 개인은 감정이나 욕구의 표현에 주의하고 때로는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한국 속담에서 보듯이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관계를 해칠 수도 있는 개인의 감정 표현은 억제되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빠른 사회변화로 인하여 조화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개성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관의 혼재됨으로 인한 표현 규범의 혼란 역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이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가 엄격히 타당화되어 다양한 연구를 촉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AEQ에 대한 한국판 타당화를 통해서 AE가 한국문화에서 어떤 구조 혹은 기저 차원(underlying dimensions)을 가지는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AEQ에 대한 서구의 연구결과들에서도 AEQ의 요인 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도구를 한국 사회와 같은 다른 문화에 사용하기 전에 체계적인 타당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AEQ를 제작한 King 과 Emmons (1990)는 정적 정서표현/부적(entitlement) 정서표현의 두 차원을 발견했으나 요인 간 상관이 높다는 점에서 단일 차원 모형을 제안하였고, 이후의 다른 연구자들은 두 차원 (i.e., rumination/control, Emmons & Colby, 1995) 또는 세 차원 (i.e., inhibited/reluctant/regretted expression, Katz & Campbell, 1994)의 구조를 보고하고 있지만, 각 하위차원을 면밀히 개념화한 타당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AEQ를 한국이라는 문화적 맥락에서 타당화 하고자 한다. 연구의 첫 단계로 AEQ가 어떤 요인구조를 갖는지를 탐색하고 그 하위 차원을 면밀히 검토하려고 한다.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AEQ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토할 것이다. 타당도의 준거로 정서 인식과 (TMMS; Salovey, Mayer, Gileman, Turvey, & Palfai, 1995) 정서표현성(EES; Kring, Smith, & Neale, 1994),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NBEE; Choi, 2003)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우울과 불안 등의 적응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이 척도의 공존타당도를 검증해 볼 것이다. 또한 사회적 선희도 척도(MCSDS; Crowne & Marlowe, 1964)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변별타탕도를 확인할 것이다.

방법

참가자 및 절차

참가자 및 절차 서울과 강원도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343명 (여성56% 평균 연령 21.7 [SD = 2.71])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소요 시간은 30분 내외였다. 결측치가 많은 1명을 제외한 34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측정도구

정서 표현 갈등: King과 Emmons (1990)가 개발한 정서 표현 갈등 질문지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한정원, 1997 번안)를 사용하였다. 정서 표현 갈등 질문지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 표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목표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고, 정서 표현, 정서 관리, 정서 규제, 미묘한 정서 표현에서의 고민(dilemma)의 과정에서 유기체가 경험하는 양가감정을 5점 척도로 평가한다.

정서인식. Salovey, Mayer, Gileman, Turvey, & Palfai (1995)이 개발한 Trait Meta-Mood Scale(TMMS; 최해연, 2005 번안)을 사용하였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소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이 검사는 각 개인이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인 정서주의 차원, 그런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인 정서명료성 차원, 그리고 부정적인 기분의 회복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서개선믿음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정서 표현성. Kring, Smith, & Neale(1994)이 개발한 정서 표현성 척도(Emotional Expressiveness Scale [EES]; 한정원, 1997 번안)를 사용하였다.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개인이 외적으로 자기 정서를 표현하는 경향성 측정한다.
정서 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Negative Belief on Emotional Expression [NBEE]; 최해연, 2005): 정서표현의 기능이나 결과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측정한다. 15문항으로 구성되면 '도구-관습적 신념'과 '정서-관계적 신념'의 두 하위요인을 갖는다
적응지표로는 Beck 우울 질문지(BDI; Beck, Ward, Mendalson, Mock & Erbaugh, 1961; 이영호 & 송종용, 1991 번안)와 Beck 불안 질문지(BAI, Beck, Epstein, Brown, Steer, 1988; 권석만, 1992 번안)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선희도. Crowne과 Marlowe (1964)가 개발한 척도 (Marlowe - 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SDS]; 이용승, 2000 번안)로 33문항으로 구성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려는 경향을 측정하며, 억압 연구에서는 방어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결과

AEQ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임으로, 한국어로 번안된 AEQ 28문항에 대하여 principal axis factoring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promax 방식으로 회전시켰다. 스크리플롯과 내용분석에 근거하여 2요인 구조와 3요인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요인 구조가 개념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판단되었다. .30의 요인부하량 기준으로 요인부하량이 기준 이하로 낮거나 두요인과 모두와 연관되는 4문항을 제거하였다. 두 요인의 의해 설명되는 분산은 41. 6%이다. 두 요인간 상관은 .62으로 상당히 높으나, 개인차 요인이나 환경적 맥락에 따라 두 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두 요인의 성격을 다른 변인들과 관계성을 비교하며 검토하였다.
요인 1은 '자기-초점적 AE' (16문항, 전체 변량의 33.13%를 설명)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능력이나 자신감 결여(예. "내가 정말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가 종종 힘들다.")와 거절을 당하거나 당황하게 되는 것 같은 정서표현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예. "나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창피 당하거나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한다")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한편 요인 2은 '관계-초점적 AE' (8문항, 전체 변량의 7.93%를 설명)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문항들(예. "때로 남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도 나는 남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이 포함되었다.
AEQ의 coefficient alphas는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AEQ, α = .91; Self-Focused AE, α = .89; Relationship-Focused AE, α = .78),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지표는 개념적으로 가정

한 바대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표현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NBEE, r = .58, p < .001)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성은 떨어졌다 (TMMS, r = -.29, EES, r = -.44, ps < .001). 반면 AEQ와 사회적 선희도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r = -.16, p < .05, n = 179) AEQ과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련되지 않는다 판단하였다. 두 하위차원과 다른 척도들 간의 관계를 보면, '자기-초점적 AE' 차원이 '관계-초점적 AE' 차원보다 일관성 있게 부적응적 패턴을 (요인 1과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성과의 더 큰 부적 상관관계,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더 큰 상관관계, 그리고 우울과 불안과의 더 큰 상관관계) 나타내었다.

표2.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정서인식,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및 심리적 적응 척도와 상관관계.

	1	1-1	1-2	2	3	4	5
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EQ)							
1-1. Self-focused AE	.947**						
1-2. Relationship-focused	.802**	.593**					
2. Trait Meta Mood (TMMS)	-.294**	-.354**	-.175**				
3. Emotion Expression (EES)	-.444**	-.408**	-.390**	.207**			
4. Negative Belief on Emotional Expression (NBEE)	.577**	.581**	.423**	-.479**	-.361**		
5. Depression (BDI)	.353**	.403**	.173**	-.328**	-.114	.242**	
6. Anxiety (MAS)	.528**	.559**	.341**	-.360**	-.144**	.417**	.575**

** p< .001.

논의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한국판은 내적일관성을 가지며 타당도 있는 도구로 평가되었다. AEQ는 요인구조를 분석한 결과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의 개념은 두 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초적점 AE와 관계-초점적 AE를 구분해 볼 수 있다. 2요인 구조는 선행 연구에서도 보고 되던 바이다. 대표적으로 Emmons와 Colby (1995)는 표현의 결과에 대한 지나친 반추로 표현을 자제하는 문항들을 포함한 차원(Rumination)과 부정 정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통제하는 문항들을 포함한 차원(Control)을 제안했었는데, 본 연구에서 도출된 2요인 각각에 포함되는 문항들은 그와 상당히 중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2요인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에 비해 '사람들이 왜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하게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선행 연구에서 각 차원에 속하는 문항의 성격을 인지적(rumination) 요소와 행동적(emotional control) 요소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사람들, 특히 한국인이 자기-보호적 동기 또는 체면과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양가적인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요인 1 자기-초점

적 AE는 반추사고라는 선행 연구의 개념적 해석과 연결되나, 요인 2 관계-초점적 AE는 한국에서, 나아가 집단주의 문화의 공통점을 가진 아시아권에서, 도출될 수 있는 해석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의 기분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 집단 내에서의 절제가 중시되는 한국 문화에서 관계나 타인을 위하여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일은 빈번하며 때로는 적응적이기도 하다. 자기욕구를 적극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두 차원 모두 적응지표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부적 관계성의 크기가 '자기-초점적 AE'가 '관계-초점적 AE'에 비해 일관적으로 크다는 것은 함의를 갖는다. 이 두 차원이 다른 개인차 요인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추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정서의 표현이나 억압 행동 자체보다 적극적인 억제노력이 정서경험과 정신건강을 매개하는 요소라는 (Pannebaker, 1985) 주장 하에 억압이나 회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에서 (예. experiential avoidance, Linehan, 1993; suppression, Gross & Levinson, 1997), AEQ의 두차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와 경험을 억압/회피하는 동기가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는 것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억압/회피 연구들이 보다 세분화 될 필요와 문화차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요인분석 단계에서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중복된 4문항이 제거되었는데, 문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번역과정에서 한국의 표현이 어색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연구팀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다음 연구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척도에 대한 재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밟았다. 도구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AE 개념의 구조를 살피고 개인차와 문화차 요인의 영향을 확인해 나갈 것이다.

Note. AEQ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2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표본에게 질문지 및 실험과제를 실시하였고, 이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할 것이며, 군집분석을 통해 구분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의 수준이 다른 집단들이 어떤 심리측정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자세한 결과는 추후 논문을 통하여 보고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 11. no.1 117-140

최해연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 39.

Cantanzaro, S. J. (1997).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affect intensity, dispositional coping, and dysphoria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34-44.

Emmons, R. A., & Colby, P.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Fridlund, A. (1997). The new ethology of human facial expressions. In J. A. Russell &J.M. Fern´andez-Dols (Eds.), The psychology of facial expression (pp. 103-12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oss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 95~103.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13-524.

Kim, Deci & Zuckerman (2002). the development of the self-regulation of withholding negative emotions questionnaire.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K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King, L. A (1998).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Reading Emotions in Situations and F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753-762.

Larsen, R. J., & Diener, E. (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1-39.

Linehan, 1993a M.M. Linehan,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Guilford Press, New York (1993).

Mongrain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447-458

Pennebaker, J. W.(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 82~95.

Salovey, P., Mayer, J., Turvey C., Goldman, S., & Palfai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 Health*, 125~154.